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800억으로 확대

7월까지 361억원 어치 판매 구매 한도 월 100만원으로 상향 10% 할인·1인 보유 200만원 유지

정읍시가 지역경제 소비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정읍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4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읍시는 코로나19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물론 모든 시민이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지역 자본의 외부유출 방지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발행 액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민생안정과 코로나19 사태 초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취임 첫날인 지난달 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검토한 이학수 시장의 제1호 결재사안이다.

이안에는 '정읍사랑상품권' 400억원 확대 발행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담겼다.

시는 연말까지 상품권의 안정적인 발행을 유지하고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것을 방지해 더 많은 시민이 '정읍사랑상품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발행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상품권 구매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단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 혜택과 1인 최대 보유 한도 200만원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정읍사랑상품권'은 모바일형과 카드형 두 가지 형태로 발행되며 모바일 앱(CHAK) 또는 농협,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등 관내 46개 금융기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구매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음식점과 마트, 미용실, 주유소 등 4600여개 가맹점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한편 '정읍사랑상품권'은 지난 7월 기준 361억원이 판매됐으며 누적 가입자는 3만9000여명을 돌파하는 등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등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오늘부터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의 사용처가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인 만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력소로 제 몫을 토티 해낼 수 있도록 상품권 이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이 조성한 황금보리 경관보전지구.

<고창군 제공>

고창군 1442농가 경관보전 작물 직불금 지급

고창군이 지난 5일부터 2022년 경관보전 작물금(동계작물) 지급을 시작했다.

금번 경관보전 직불금은 지난 가을에 파종된 유채, 보리 등 동계작물 1750ha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총 54개지구 1442농가에 22억7000여만원이 지급된다.

군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유채 경관지구를 조성해 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의 청정한 자연생태환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경관보전직불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아직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선보이지 못했고 더군다나 올해는 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유채, 보리 등 동계작물 작황이 좋지 않아 개화율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당절임 식품안전관리 기준 인증 획득

인증품목 잼·과자류 등 4개로 늘어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당절임 유형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 인증을 획득했다.

HACCP은 소비자가 농산물 가공식품을 최종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번에 당절임 HACCP 인증 획득으로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의 HACCP 인증 품목은 과채주스와 잼, 과자류까지 총 4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지난 2020년 첫 가동을 시작한 농산물가공센터는 농산물 세척, 작즙, 살균, 건조, 분쇄, 포장할 수 있는 78종 90여 개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HACCP 인증과 함께 안전한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내부 시설 및 가공 장비 보완, 관리기준 수립, 종사자 교육 등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운영 첫해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57개 농가가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해 총 1만3100kg의 농산물을 처리했으며 농업인 판매 매출액 2억1000만 원을 달성했다. 생산된 제품에는 공동브랜드 '단풍드림'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중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HACCP 인증을 통해 '단풍드림' 가공식품의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도가



정읍 농산물가공센터 관계자가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 인증을 획득한 시설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전북교육청, 수시 입시설명회...6개 권역 순회

전북권·수도권 대학 지원 전략 강의

전북교육청이 2023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수험생들에게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입시설명회를 연다.

전북교육청은 맞춤형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전주에서만 실시하던 '수시지원 전략 입시설명회'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 10분까지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 ▲군산, 오는 18일 오후 7시부터 밤 9시 20분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 ▲익산, 오후 2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광대학교 프라임관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다.

그 외 정읍은 오는 18일 오후 7시부터 밤 9시10분 정읍사예술회관, 남원시 오는 17일 오후 7시부터 밤 9시까지 남원교육지원청 시청각실, 김제시는 18일 오후 7시부터 밤 9시10분까지 김제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설명회는 고3 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연수지원팀 강사들과 대학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한다. 2023학년도 대입 수시 대비 전북권 및 수도권 대학 등 지원 전략 방안을 강의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별 수험생들의 지원 성향에 따른 진학 정보를 제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유튜브 '남원시TV' 하반기 영상기자단 선발

남원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남다른 열정으로 남원의 곳곳을 촬영하며 생생한 소식을 전해줄 '2022년 남원시 TV 하반기 영상기자단'을 선발했다.

선발된 하반기 영상기자단은 남원시의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고품질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며 유튜브 '남원시TV'를 통해 연말까지 시청자와 소통·공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튜브 '남원시TV'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구독자를 늘리고 기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콘텐츠를 연계 확장해 나가며 남원시를 홍보하고 있다.

오는 9월 남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도민체전 흥

보영상을 비롯해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통해 시청자와 만나며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토티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 구석구석을 알릴 수 있도록 영상기자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루하고 딱딱한 영상이 아닌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 제작을 통해 남원시 유튜브 시청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까지 활동을 마친 상반기 영상기자단은 '소풍가기 좋은 인월', '춘향제 풍경' 등의 생동감 넘치는 17편의 영상을 만들며 남원의 매력을 많은 시청자에게 소개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건고추 장터' 개장

고창군은 본격적인 고추 출하시기에 맞춰 '건고추 장터'를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신규 조성된 '고창군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개장한다.

건고추 장터는 생산농가와 상인, 소비자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직거래 장터로 생산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우수한 품질의 고추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자리다.

오는 10월까지 이어지는 장터는 고창 장날인 매월 3·8·13·18·23·28일에 맞춰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운영하며, 농가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부대 시설과 고객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군은 건고추 장터 활성화를 위해 특별교부세 예산 5억원을 확보해 판매시설 신축을 통한 장터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

을 통해 고창에서 생산된 우수한 고추임을 인증해 상품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박성기 고창군청 농어촌식품과장은 "이번 건고추 장터를 통해 고추 생산농가는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고, 상인과 소비자들은 우수한 품질의 건고추를 구매할 수 있어 모두 만족하고 있다"며 "건고추 장터가 활성화되어 활력 넘치는 고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